

안동보호관찰소

○ 매체 : 대경일보(2026. 7. 21.)

○ 제목 : 안동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투입..민·관 협력 복구 지원

안동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투입...민관 협력 복구 지원



▲ 안동보호관찰소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한 지역 업체에 사회봉사 인력을 긴급 투입하며 복구 지원에 나섰다. 안동보호관찰소 제공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인력을 긴급 투입하며 복구 지원에 나섰다.

안동보호관찰소는 21일 안동시 남선면의 한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비롯해 보호관찰소 직원, 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안동시청노동조합·안동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소속 인원 등 30여 명과 함께 수해 복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안동·의성 지역에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안동시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현장 확인과 국민공모제 신청 접수를 거쳐 신속히 추진됐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창고가 50cm 이상 침수되면서 가구와 자재 이동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투입된 인력은 침수 물품을 외부로 옮기고 작업장을 정리하는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며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안동보호관찰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재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호 소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복구와 공익을 위한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